

여 원내대표 오늘 선출...탄핵 정국 속 계파 대결 여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맞대결 구도를 보이면서,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향후 당내 주류 세력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권성동(5선·강원 강릉),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차기 원내대표는 12일 합동토론회를 거쳐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을, 친윤계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친윤 핵심’ 권성동 vs ‘친한 지원’ 김태호...경선 결과 주목 조기대선 전망에 주도권 싸움...여권 권력지형 재편 가능성

차기 원내대표는 일단 선출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중징부터 모아야 한다.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 역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윤계와 일부 중진위원을 중심으로 4·5월 대선 일정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는 또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대응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전임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채택과 표결 불참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다수결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의사가 의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차기 원내대표의 의견이나 성향에 따라 ‘12·3

비상계엄’ 정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자신들의 뜻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치열한 물밑 표 싸움에 돌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현상황도 차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대표가 조기 대선에 따른 대선 출마 시장 대표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대표 권위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사실상 ‘원톱’ 체제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계는 특히 친윤계 원내대표가 대선 정국에서 당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당으로 전이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최근 윤석열과 친윤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든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추출하고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친윤 핵심인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원내대표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합이 있고 당정 소통이 원활한 권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을 지지하는 한 중진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합”이라며 “특히 협상력과 추진력이 권 의원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침묵의 힘, 그리고 외침의 힘...윤석열 탄핵 촉구 ‘뜨거운 광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방의원들이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700여명이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국 오늘 대법 선고... ‘대권가도’ vs ‘구속’ 갈림길

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파기 환송 땀 대선 출마 길 열려

유죄시 비례 13번 백선희 승계...선고 연기 가능성도 여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

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

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유죄 시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시민 덕에 회복”

전대법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천 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 처장은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의 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대

사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성의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재차 “예,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와 관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또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